

“법정 스님 입적때도 안쉬었죠”...

맑고향기롭게 밀반찬 지원 봉사자들



맑고향기롭게의 밀반찬 봉사활동은 ... 1998년 외환위기에서부터 시작했다. 노숙자 쉼터와 무료급식소를 마련한 이후 가정에 남겨진 소년소녀가장과 독거어르신 돕기로 확장됐다. 서울 본부의 반찬봉사팀은 서울 성북구 뿐만 아니라 강서구 등 전역에 반찬을 전달하고 있다.

3월 27일 길상사 조리장에서 만든 장조림 반찬을 담고 있는 봉사자들

지난 3월 27일 서울 성북구 길상사에서는 향기로운 음식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다. 일주문 옆 주차장에 자리한 작은 조리장에서 흘러나오는 냄새였다. 법정 스님의 입적 5주기와 맑고향기롭게 창립 21주년을 맞은 3월,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스님의 무소유와 나눔정신을 실천하고 있었다. 이들은 손을 바빠 놀리며 음식 만들기에 여념이 없었다. 도움을 기다리는 결식가정을 생각하면 잠시나마 쉴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반찬 메뉴는 장조림과 마늘종볶음, 결식가정 450가구에 밀반찬으로 제공될 음식들이었다.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들이세요. 교회다니시는 분들도 있고요. 목요일과 금요일이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홀로 계신 어르신 가정을 비롯해 소년소녀 가장 가정 등을 찾아 반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진 맑고향기롭게 세상사업 간사는 반찬봉사팀에 대해 소개했다. 맑고향기롭게의 결식 이웃을 위한 '밀반찬 조리 및 전달' 봉사 활동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시작했다. 당시 법정 스님과 회원들은 실업자가 된 노숙자들을 위해 쉼터와 무료 급식소를 마련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가정의 실업으로 인해 남겨진 아이들과 노부모들의 결식 문제였다. 결

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찬봉사를 결심했다. 처음에 60여 가구였던 밀반찬 지원은 점점 수요가 늘어나며 현재 450여 가구를 넘었다.

이 간사는 최근에는 독거어르신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제진 간사는 "고령화로 인해 홀로 계시면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분들은 먹거리 걱정이 제일 많습니니다. 일주일 분량이 아닌데도 일주일치 반찬으로 놓고 먹는다고 하실 때 많이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죠"라고 말했다.

'맑고 향기롭게'의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이 10년 넘게 꾸준히 자비보시행을 이어왔다. 특히 밀반찬 지원 자원봉사자들은 40대 초반에서 70대 초반에 이르는 다양한 연령대의 주부들로 구성되어 있다. 법정 스님도 생전에 밀반찬 자원봉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 항상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직접 농사지는 감자나 옥수수를 들고 조리장을 방문하거나 자신의 저서에 자원봉사자가 보낸 편지를 소개할 정도였다.

이날 유난히 바빠 몸을 움직이고 있던 최두리 모듬장은 "법정 스님 생전에는 길상사보다 우리 '맑고향기롭게' 밀반찬 조리장을 더 아끼셨다는 말이 있다"

어려운 이웃 기니 거르지 않는 사랑

- IMF 노숙인 급식서 시작해
- 60가구서 현재 450가구로
- 독거어르신 가정으로 봉사확대
- 봉사자 대부분 10년 넘는 베테랑
- 무종교인·이웃종교인 많아
- 2009년부터 목요일도 봉사 시행

고 했다. 최 모듬장은 "어른 스님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려 한다"며 눈시울을 붉히면서도 바쁜 손을 잠시도 쉬게 하지 않았다.

최 모듬장은 "대부분 꾸준히 활동하신 분들이고 주부들이라 솜씨가 베테랑급"이라며 "다들 살림에는 일가견이 있어서인지 이제는 손발이 척척 맞는 다"고 웃었다.

재빠른 손놀림으로 장조림 반찬을 조리하던 다른 봉사자는 "바쁜 일이 생기면 못 오기도 하고 가끔 늦기도 하지만 누가 뭐라는 사람이 없다"며 "우리 같은 주부들이 부담 갖지 않으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라며 웃었다.

맑고향기롭게의 밀반찬 자원봉사에서는 종교의 벽도 넘어섰다. 법정 스님의 책을 읽고 길상사를 찾았다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다른 종교인이나 인근 주민도 적지 않다.

13년 넘게 밀반찬 봉사를 해 온 김자현 씨는 "법정 스님의 글을 접하고 다른 이들을 돕고 싶어 길상사를 찾았다. 길상사에서 맑고향기롭게를 알게 됐고 밀반찬 봉사를 하게 됐다"며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봉사자 분들 중에는 불자가 아닌 분들도 많은데

종교를 떠나 함께 어울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반찬봉사 현장에는 멀리 성남시, 용인 등지에서 온 봉사자들이 많았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조리일정에 맞추기 위해 7시에 집에서 나선다고 말했다.

"일주일에 이틀씩 아침마다 나서다 보니 처음에는 가족들이 반대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눔의 기쁨을 알고 함께 좋아합니다. 학교에 가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에 같이 나서고 있어요."

장조림 반찬에 들어갈 삶은 계란의 껍질을 열심히 벗기는 한 보살은 이틈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홍현아 반찬봉사 팀장은 특별한 강요는 없지만 일손이 부족해 조리장 운영이 어려웠던 적은 없었다고 한다. 오히려 한명, 두명씩 자원봉사자들이 늘어 지원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맑고향기롭게 밀반찬 봉사는 2009년부터는 목요일에도 진행하고 있다. 홍 팀장은 "우리의 밀반찬 봉사도 하다가 쉬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게 하는 건 오히려 스님의 뜻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각 지역에서 봉사활동 활발
맑고향기롭게는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동봉 스님의 사색과 통찰로 빛은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동봉 지음 | 신국판 580쪽 | 23,000원

과학과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아미타경 해설, 동봉 스님의 치열한 삶과 수행 이야기가 담긴 수필처럼 아름다운 경전 해설서

MBC 스페셜 '동봉, 킬리만자로에 가다'를 통해 아프리카에 학교를 짓고, 말라리아에 걸린 사람들을 구호하는 모습으로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한 동봉 스님의 57번째 저서, 아미타경이 21세기 지구인의 공통 화두인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 경전이라고 강조하는 스님은 그 과학적 근거를 이 책에서 유려한 필치로 펼쳐 놓았다.

BTN 특강 동봉 스님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60분간), 4월 2일 첫 강의
장소 불교 TV 남부순환로 2265(방배동1027-4)
전화 02-3270-3355

동봉 스님 저자 강연 사인회
일시 2015년 4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장소 부산 영광도서
전화 051-816-9500



- 민족사에서 펴낸 경전을 읽는 즐거움 시리즈
- 숫타니파타를 읽는 즐거움 보경 지음 | 376쪽 | 값 15,000원
- 승만경을 읽는 즐거움 일진 지음 | 312쪽 | 값 15,000원
- 금강경을 읽는 즐거움 일걸 지음 | 1권

이웃위한 15년 반찬봉사



3월 27일 광주에 개원한 무소유 카페



2014년 열린 맑고향기롭게 20주년 법회



2014년 진행한 KTX봉사팀의 김장 나눔



맑고향기롭게 김상화 장학금 전달식



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의 공양나눔 봉사 모습

통해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법정 스님이 1993년 우리 사회에 맑고 향기로운 마음의 연꽃을 피워 보자는 뜻으로 종교와 종파를 떠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주창했다.

1994년 3월 26일 서울 양재동 구룡사에서 법정 스님의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발족 강연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대구, 경남, 광주, 대전 등지에서 뜻 있는 이들의 모임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

자발적인 모임이기에 자비보시행은 밀반찬 봉사에만 그치지 않는다. 동물사랑캠페인과 새집 달기, 동물 모이 주기, 자연보호활동 등 생태환경운동을 비롯해 독거어르신 말벗봉사, 지체장애아 목욕봉사 치매어르신 도우미, 김상화 장학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맑고향기롭게는 이러한 사업을 세상사업이라 부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봉사의 기쁨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매월 1회 독거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어르신들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외로움을 달래고 청소년들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기회를 얻고 있다.

2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김규은 학생은 어르신들의 삶을 이해하는 기회가 됐다고 후기를 남겼다.

"어르신께서는 말할 사람이 없어 텔레비전을 보며 대화를 하신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문득 어르신께 필요한 것은 물론 경제적인 지원이나 의료지원등등 형식적인 것들이겠지만, 가장 필요하고 원하시는 것은 외로움을 달랠수있는 우리같은 자원봉사자들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웠다는 어르신 말씀에 비록 한달에 한번이지만 진심을 다해 할머니께 내 마음을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모임 중 이 같은 활동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는 곳은 광주지부다. 1997년 결성된 광주지부는 광주지부는 광주지방법원 인근에 '공양나눔의 집'을 마련해 매일 노인과 결식계층을 위한 1000원 밥상 행사를 진행하고 있

다. 공양나눔의 집에서는 매일 1식 3찬이 제공되며 이를 먹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1000원을 기부한다.

이금지 광주지부 운영위원장은 "백반 값은 법정 스님이 생전 어려운 사람을 돌더라도 자존심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넘치는 사랑 목욕봉사 등에 이어져

청소년-독거어르신 결연 진행

지체장애인 목욕봉사 등 활발

"잇 세대 이해하는 계기돼" 후기

전국 각지서 법정 스님 가르침 실천

광주 '공양나눔' '무소유 카페'

부산 5000여 회원 활동, 국내 최대

각계 각층에서 조용한 활동 특징

이들은 16년간 매일 새벽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해 4인 1조로 총 20여 명이 도시락을 마련해 각 복지관의 소외 계층에게 전달한다. 광주지부에는 현재 매월 4000kg의 쌀과 반찬이 260여명의 회원과 단체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소유 카페를 개소하기도 했다. 이 까

페서는 간단한 다과와 함께 법정 스님의 책을 조용히 볼 수 있다. 카페 수익금은 공양나눔의 집을 비롯한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된다.

부산 지부의 경우 총 5천 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어 최대 규모다. 현재까지 어려운 이웃 돕기와 자연 보존,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혼자 사는 노인 1천200여 명에게 매달 10만~20만 원의 생활보조금과 함께 밀반찬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어려운 환경에서 꿈을 키우는 학생 1천400여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도 적극 추진해 있다. 지난 1998년부터 해마다 여름방학 기간동안 중고등학생 1천 명을 모집해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부산청소년자원봉사상을 제정, 매년 시상하고 있다.

활발한 활동 속에서 자원봉사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말한다. 자원봉사자 김용덕 씨는 "얼마 전 돌아가신 자원대상 어르신인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갑니다'고 말을 남기셨을때 감동을 받았다"며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좀 더 우리사회를 밝게 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말했다.

법정 스님의 5주기를 맞은 맑고향기롭게 봉사회원들은 언론이 그져 '무소유'만을 강조하는 것 같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맑고향기롭게 회원 이유호 씨는 "불교적 깨달음의 사회적 실천 모델이 맑고향기롭게다"며 "깨달음이 사회적 매아리가 되어서 이웃과 나누고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법정 스님의 진짜 정신"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종교인으로서 사회현실에 대해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의 사회화'를 위해, 산속에만 있지 않고 사회에 나와서 참여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법정 스님의 가르침을 이들은 묵묵히 행하고 있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립스틱 보시'의 교훈

예전 여수 향일암에서 소임을 살 때 주지 스님은 항상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주머니에 돈이 천원이 있으면 800원은 도반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쓰세요. 나머지 200원만으로 내가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수행자가 돈을 모으고 많은 돈을 소지하고 있으면 스님 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와 마장이 오고, 도반과 주위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으면 인색 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 떠난다는 요지의 말씀이었다.

원각사에 와서도 나는 가진 게 있으면 신도들에게 회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원각사의 사적이 정상화되기까지 신도회장과 임원, 수행단체 봉사자들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출가 사찰 파계사 스님들

열대에 놓인 많은 립스틱을 보고 모두 다 사버렸다. 동행한 스님들 몰래 걸망 속에 립스틱을 숨겨 놓았다. 2박 3일 대마도 일정을 보내고 원각사에 돌아와 립스틱을 하나하나 예쁘게 포장했다. 신도들이 받고 즐거워할 모습이 그려졌다.

신도들이 사찰에 오는 날, 한분 한분 몰래 불러 선물로 드렸다. 그리고 신신당부했다. 다른 신도들에게는 말하지 말고, 굳이 불필요한 말 전함과 오해가 있어서는 안됐기 때문이다. 실제 누구도 나에게 립스틱 선물을 받았다고 이야기한 신도는 없었다. 다만 몇몇 신도들이 나에게 고마움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해줬다.

"남편한테도 한평생 살면서 립스틱 선물을 받아 본 적이 없는데, 주지 스님한테 립스틱 선물을 받아서 정말로 감동이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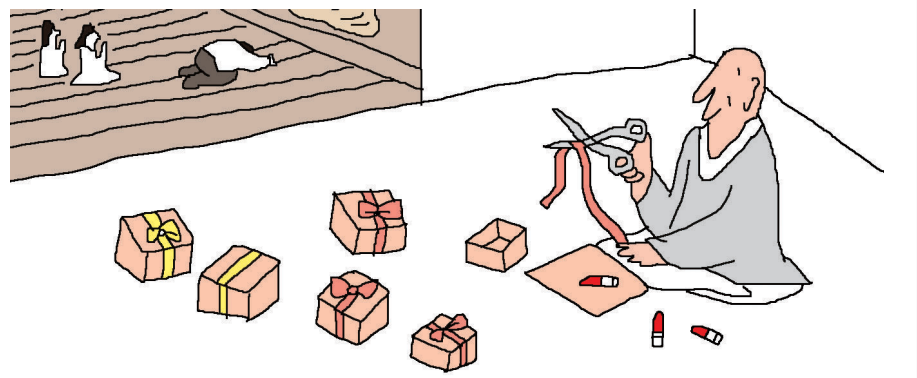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을 모시고 2박 3일 일본 대마도에 가게 됐다. 가기 전날 신도회에서 십사일만 돈을 모아 예비까지 마련해 줬다. 너무 신도들의 마음 씀씀이가 고마웠고, 또 미안했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대마도에 무사히 도착했고, 자유시간이 생기자 나는 곧바로 일본의 대형마트에 들러 쇼핑을 시작했다. 신도들에게 줄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다. 선물은 이미 마음 속으로 정해놓았다. 바로 '립스틱'이다. 내가 신도들을 위한 선물로 립스틱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다.

하루는 법회가 끝나고 친한 신도 분들에게 농담으로 물었다. "보살님은 립스틱 색깔이 빨간색 하나 밖에 없으세요?" 그러자 "네, 스님. 색깔이 빨간색 하나 밖에 없어요. 스님이 사주시게요?"라고 신도들이 답했다. 그 대답에 "사드리겠다"는 약속했다. 반쯤은 농담이었지만 약속은 약속이니까.

막상 마트에 도착하니 마음이 떨렸다. 동행한 스님들이 구입하는 물품을 보고 뭐라고 할지 두려워 먼저 보내고 쇼핑을 시작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립스틱을 구입 해 보는 날이었다. 세속의 남성들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미션이다. 그냥 진

습니다. 기본 최고입니다." 립스틱 선물 받은 신도들은 사찰에 올 때마다 내가 선물한 립스틱만 바르고 오신다고 한다. 내심 뿌듯했다. 신도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진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일이다. 스님들의 눈치 보며 대마도에서 구입한 립스틱 선물은 말 그대로 '대박'이었다.

불교에서 보시(布施)는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푸는 것을 말한다. 그 중에도 삼륜정정(三輪淸淨)한 보시가 참다운 보시라고 한다. 삼륜정정은 시자(施者, 보시를 하는 사람), 수자(受者, 보시를 받는 사람), 사물(施物, 보시하는 물건)이 정당한 것을 말한다. "나의 '립스틱 보시'는 삼륜정정의 대표 사례가 아니겠나"라고 자문해본다.

요즘 들어 법회에 많은 신도들이 가득 찬다. 좋은 현상이다. 기존 신도들이 새로운 신도를 데리고 원각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조그마한 배움이 곧 공덕으로 돌아오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는 요즘이다.

연호 스님 (서울 원각사 주지)

월호 스님이 잔잔하게 스토리텔링 기법으로 전하는 참선 이야기와 하루하루 일상속의 깨달음을 보여주는 '냥의 수행일기'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월호 · 배중훈 지음 | 변형신국판 울라라 280쪽 | 16,500원

참선은 의미가 있다. 카툰은 재미가 있다. 그래서 참선과 카툰이 만난 것이다!

모든 사물을 정신과 물질의 두 가지로만 나누어 관찰하는 서구식 사고로는 참선을 이해하기 쉽지 않다. 플라톤의 고양이는 천국에 원본이 있다. 현실의 고양이는 사본에 불과하다. 하지만 참선의 고양이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항상 귀중한 원본이다. 고양이를 살려낼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대에게 달려 있다. - 월호

